IFES

뉴스레터

2024년 12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뉴스레터 27호(12월) 목차

연구활동

1. 학술활동 03
2. 교수 연구활동 11
3. IFES 브리프 및 포럼 16
4. Fellowship 사업 19
5. 북한 · 국제 정세 동향 21

연구소 소식

1. IFES 동정 26
2. 언론 속의 IFES 27
3. IFES 도서관 29
4. 예정사항 30
5. 안내사항 31

연구활동

학술활동

교수 연구활동

IFES 브리프 및 포럼

Fellowship 사업

북한 · 국제 정세 동향

IFES

1. 학술활동

가. 제12차 삼청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1월 21일(목) 19:00시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박노벽 전 주러시아·우크라이나 대사가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전 대사는 포럼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국제 안보와 경제에 미친 복합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이 전쟁은 러시아-유럽 관계와 미국-러시아 관계를 악화시키고, 러-우 내부의 경제적·군사적 부담을 심화시키며 복잡한 국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사는 “전쟁 장기화로 인해 러시아는 군수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우크라이나는 인프라 파괴와 인명 피해 속에서 재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국제 사회에 장기적인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개입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을 실현하려 해도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미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유럽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성급한 결단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전쟁을 확대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내용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 전 대사는 북한의 움직임을 주목하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지원 협력과 군사적 개입을 통해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군사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와 주변국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전 대사는 이러한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우크라이나 재건과 평화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번영과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며, 한국이 직면한 안보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1. 학술활동

< 발표내용 요지 >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영향과 시사점

o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3년째 장기화되면서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갈등 지속과 전쟁 발발은 단순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 관계를 넘어 러시아-유럽 관계, 미국-러시아 관계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복잡하게 엮이며 악화되어 왔다.

o 바이든 행정부시기에 발발한 이 전쟁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 그러나 명확한 출구 전략 제시 없이 지원을 지속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게 했다.

o 트럼프는 재집권 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세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그의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o 하지만 이 문제는 미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유럽, 우크라이나와 충분한 협의와 조정, 러시아와 타협이 요구된다.

- 성급하게 처리할 경우, 과거 사례처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하거나 전쟁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

o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종전협상 개시에 앞서 점령지 탈환과 군사적 우위 확보를 위한 치열한 전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모두 전쟁으로 인해 군사적,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o 특히 러시아는 군수산업에 의존해온 경제 운영으로 인해 전쟁 지속 시 자체적인 경제 파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크레믈린이 이를 피하기 위해 종전 이후에도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o 강대국 사이에서 위기와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 안전보장 등 주요 합의가 중요하다.

o 이는 지역과 세계 안보와 직결될 수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전쟁이 보여준 전통무기와 혁신무기 간 상호보완성 등 새로운 군사적 시사점, 경제요인의 영향 등을 교훈 삼아 우리 안보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o 전쟁의 여파는 유럽 안보에 대한 위협을 넘어 한반도까지 확대 되었다.

-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새로운 위험 요소로 대두 되었다.

o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무기 지원과 군대 파병을 통해 신냉전 구도 형성을 몰아가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o 트럼프의 재집권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미국의 주도국 역할에서 자국 이익 중심의 현실주의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 이는 미국의 쇠퇴로 해석하기보다는, 새로운 경쟁 국가들의 등장으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하여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간주, 상호 협력의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

o 우리는 트럼프식 거래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동맹현안의 접근에 대해 윈-윈(Win-Win)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다방면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첫째: 우리 안보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동맹을 한미의 소중한 자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
- 둘째: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전략으로 한반도 주변국가 관계 관리를 통해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안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전쟁 종식과 지역 안정은 유럽 뿐 아니라 한반도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과 평화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과 기여를 통해 강대국 간 갈등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에 동참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유지와 우리의 지속적 번영 등 실질적 국익을 효과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 해외 전문가 초청 특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1월 26일(화) 19:00 통일관 지하1층 105호 세미나실에서 해외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마그누스 브레히트켄 독일 뮌헨 현대사연구소 부소장(뮌헨대학교 겸임교수)이 “독일의 통일 과제-35년간 얻은 역사적 관점, 경험 및 교훈,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그누스 브레히트켄 부소장은 독일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 1989년 독일의 통일과 통일 이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통일 34년 후, 상반된 세계관에서 비롯된 역사적 차이는 여전히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시험이자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그누스 브레히트켄 부소장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교훈은 정치 체제와 민주적 안정성, 경제와 사회, 세계관, 그리고 사고방식 등 여러 영역에서 구별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장기적인 대변혁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 참석한 인사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번 해외 전문가 초청 특강은 독일의 통일 과제에 대해 그동안 정치적 측면에서 많은 분석과 달리 독일의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접근을 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다. 중국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방문 학술 세미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1월 30일(토) 09:00 중국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회의실에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는 우하오 길림대 동북아연구원장, 장후이즈·왕샤오커·진샹단·진헤이정·션정지·피야오잉아이 길림대 교수와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협력실장,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학술 세미나에서 첫 번째로 이관세 소장은 “한반도 정세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서 최영준 국제협력실장의 “미국 신정부의 핵정책과 북핵문제 전망”, 이상만 중국연구센터장의 “미국 대선이후 한중관계 발전 전망”, 김상범 교수의 “미국 새 정부의 북남관계 변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정세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특히 북한 핵문제 및 남북관계 전망, 러-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 유동적인 동북아정세 상황에 대해 폭 넓고 심도 있는 토론을 개최하였다.

이어 이관세 소장은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석·박사생 30명을 대상으로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특강과 함께 질의·응답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미 있는 토론을 가졌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더 많은 교류를 희망하면서 동북아정세와 한반도평화를 위한 세미나 및 학술사업의 공동 진행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라. 연구서 발간 (한반도 포커스 3종)

한반도포커스 2024-01

기시다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

2024. 11. 15. 나카토 사치오, 다마키 노부히코, 조진구, 정혜경, 김숙현, 히라이 히사시, 이웅현

2024년 9월 27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이 당선되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되었다.

기시다 정권은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2022년 12월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주요 전략 3 문서를 개정했다.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면서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 책자는 7명의 한일 양국 전문가가 3년간의 기시다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의 내용과 유산을 평가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목 차〉

o 총론: 기시다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유산
- 나카토 사치오(리쓰메이칸대학 교수, 부총장)

o 기시다 정권하의 일본과 미·중관계 - 서방의 협조에 의한 '법의 지배'를 추구하며
- 다마키 노부히코(주오대학 교수)다마키 노부히코(주오대학 교수)

o 기시다 정권과 한·일관계 1: 외교·안보
-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o 기시다 정권과 한·일관계 2: 역사 - 물컵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기시다 정권
- 정혜경(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대표)

o 기시다 정권과 한·일관계 3: 시민사회
-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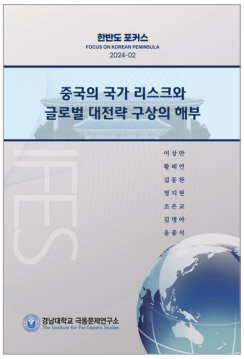
o 기시다 정권과 북·일관계
- 히라이 히사시(전 IFES 초빙연구위원)

o 기시다 정권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이웅현(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

한반도포커스
2024-02

중국의 국가 리스크와 글로벌 대전략 구상의 해부

2024. 11. 20. 이상만, 황태현, 김동찬, 정지현, 조은교, 김명아, 윤종석



한반도 포커스 중국편 집필 목적은 20차 3중 전회 전후 중국의 국가상황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경제의 침체와 북중관계의 균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향후 중국의 국가 대전략을 해부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서는 중국의 국가리스크와 글로벌 대전략을 해부하여 보다 정확한 중국 관련 각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집필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법제도 등 중국연구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중국전문 연구자들로 구성하였다.

집필자 각각은 모두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고 설명을 하여 현재 중국에서 전개되는 국내외 상황들을 보다 세밀하게 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목 차〉

o 중국의 국가전략 변화 분석과 평가: 한반도에 대한 함의
-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o 중국 국내정치 매커니즘과 정치개혁 가능성
- 황태현(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o 중국의 대전략 구상 해부: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전략과 제약 요인 분석
- 김동찬(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o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와 한국의 대응
- 정지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o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와 한·중 협력
- 조은교(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o 중국 신(新) 법 체계와 법제 변화 전망
-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o 중국의 사회 (불)안정과 민생 개선을 위한 거대한 과제
- 윤종석(서울시립대 교수)

한반도포커스
2024-03

한국의 독자적 핵능력 확보 가능성과 과제

2024. 11. 22. 이병철, 이유호, 신동익, 전봉근, 함형필

이 보고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능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가능성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미 협정의 틀 안에서 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원심분리기 기술 및 원자력 발전 활용 능력 등 기술적, 외교적 접근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동북아 안보 정세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핵 관련 민간 및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핵 정책 방향성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o 핵 비확산 체제 내에서 농축 가능성과 과제
- 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o 원심분리기 기술과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용 우라늄 농축
- 이유호(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부교수)

o NPT준수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한국의 핵연료주기 능력 확보 문제
- 신동익(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前주오스트리아 대사)

o 한국 핵무장 시 동북아 안보 정세 전망: 핵 억지의 불안정성
- 전봉근(국립외교원 명예교수)

o 우라늄 농축 기술의 민간 및 군사적 활용 가능성: 한국의 전략적 선택
- 함형필(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 교수 연구활동

가.『중국 국가 주도의 '팬덤'관리 및 제도 형성 원인분석』

(중국지역연구 제11권 4호(통권 33호) 게재 주요내용 요약: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주요내용 요약 ≫

- o 본 논문은 중국사회에서 '팬덤 현상'은 합법성의 위기를 겪으면서 점차 국가통치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 o 중국의 사회구조와 집단관계, 그리고 집단 자체의 실천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주로 개혁개방으로 인한 사회적 전환이 국가와 사회관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o 국가는 문화 분야의 관리권한을 부분적으로 사회에 이전하였고, 상업 자본은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유입되어 '팬덤'을 직접 구성하기도 하였다.
- o 이는 '팬덤'에 대한 고유한 문화를 구성하여 자신의 이익 목적을 충족시켰으나 '팬덤'의 요구는 점차 국가 관리 시스템과 정치적 레드라인을 침범하게 되어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 o 즉, 상업적 경제주체가 사회를 과도하게 지배함에 따라 비경제적 사회기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과소평가 되었으며 적시에 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없었다.

나. 학술활동

임을출 교수

1)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최, 2024 한국학기초연구 학술대회 토론
   - 일자/장소: 2024. 11. 15.(금) /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220호
   - 주제: 북한체제는 왜 붕괴하지 않는가?

2) 국회 박선원 의원실 주최, 트럼프 2기 한반도 외교안보전략 토론회(유투버) 패널
   - 일자/장소: 2024. 11. 25.(월) / 국회 의원회관 이실직고 스투디오
   - 주제: 트럼프 2기 정부 한반도가 나아갈 방향

3) 대진대 주최, 북한 핵무력 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 발표
- 일자/장소: 2024. 11. 27.(수) /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 국제회의실
- 주제 : 한국의 핵무장 바람직한가?

조진구 교수

1) 한국 비확산·원자력저널 (한국핵정책학회 2024.10월 18호) 논문 게재
- 내용: 일본의 원자력 정책 동향

2) 충남대 한국정치연구소-한국지정학연구원-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 연합학술회의 토론
- 일자/장소: 2024. 11. 15.(금) / 고려대학교 회의실
- 내용: 2024년 한국의 대외관계와 대내정책: 현황과 과제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주최 2024 서울평화통일포럼 토론
- 일자/장소: 2024. 11. 19(화) / 서울글로벌센터
- 내용: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 인권 개선

이형종 교수

1) 한양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나우만재단 국제학술회의 발표
- 일자/장소: 2024. 11. 21.(목) /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
- 내용: 남북한 마음의 통합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1) Borrell EU 외교장관 면담
- 일자/장소: 2024. 11. 4.(월) / EU 대사관저
- 내용: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EU측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

2) KDI 정책대학원 'G-20 정상회의' 관련 세미나 주재
- 일자/장소: 2024. 11. 11.(월) / 콘래드 호텔
- 내용: 기후변화 등에 대한 브라질 대사, 영국 공사, 독일 공사의 의견 개진 유도

3) 국회 유용원 의원실 주최, 무궁화 포럼 주재
- 일자/장소: 2024. 11. 11.(월) /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
- 내용: 트럼프 정부와 한국이 어떤 방향에서 안보·경제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 논의

4) 아산정책 포럼 발표
- 일자/장소: 2024. 11. 12.(화) / 아산정책연구소 회의실
- 내용: 한국의 제조업 능력, 대미 투자실적 등의 자산을 활용, 트럼프 정부와 협의

전령현 초빙교수

1)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정체성 인식과 사회정착에 관한 청년포럼 발표
- 일자/장소: 2024. 11. 11.(월) / aT센터 창조룸
- 내용: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특강
- 일자/장소: 2024. 11. 28.(목)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내용: 중국의 통일방안 일국양제

다.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1) YTN '이슈플러스' 출연 (2024. 11. 1. 금)
- 내용: 북한, ICBM 고각 발사...김정은 "핵무력강화 절대 안 바꿔"

2) CNN 인터뷰 (2024. 11. 8. 금)
- 내용: Trump claims Kim Jong Un 'misses' him. But he faces a very different North Korean leader this time around (트럼프는 김정은이 자신을 '그리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 매우 다른 북한 지도자를 상대하고 있다.)

3) SBS '8시 뉴스' 인터뷰 (2024. 11. 10. 일)
- 내용: 유세 중에도 "김정은과 친하다"…미, 비핵화 대신 핵감축?

4) YTN '뉴스퀘어10' 출연 (2024. 11. 18. 월)
- 내용: "유사시 미제, 조선반도에...전쟁준비 총력"

5) MBC '8시 뉴스데스크' 인터뷰 (2024. 11. 18. 월)
- 내용: "핵무력 강화로 전쟁준비 완성"‥'러시아 파병' 경고하는 미국도 원색 비난

6) KBS '9시 뉴스' 인터뷰 (2024. 11. 19. 화)
- 내용: 김정은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 다해야…핵 무력 부단히 강화"

7)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출연 (2024. 11. 21. 목)
- 내용: '핵 사용' 레드라인 넘었나?…푸틴 막을 유일한 시나리오는

조진구 교수

1) 뉴스1 인터뷰 (2024. 11. 24. 일)
- 내용: '강제' 빼고 '한반도 노동자' 언급…'반쪽 추도식' 회복 못한 日

2) YTN '이슈ON' 출연 (2024. 11. 26. 화)
- 내용: 군함도 이어 사도광산도 뒤통수…'뒷북' 유감 표명

3) 중앙일보 인터뷰 (2024. 11. 26. 화)
- 내용: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인데…일본 '세계문화' 두번째 뒤통수

이병철 교수

1) The National Interest 기고 (2024. 11. 28. 목)
- 내용: 북-러 동맹이 중대한 위협인 이유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1) 연합 TV 출연 (2024. 11. 6. 수)
- 내용: 美대선에 반영된 미국 시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분석과 우리 외교,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2) 아리랑 TV 출연 (2024. 11. 7. 목)
- 내용: 美대선에 반영된 미국 시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분석과 우리 외교, 경제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3) 코리아 타임스 기고 (2024. 11. 15. 금)
- 내용: "How do you plan to work with Mr. Trump's White House?"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과 어떻게 일할 계획입니까?)

4) 한국일보 '안호영의 실사구시' 기고 (2024. 11. 25. 월)
- 내용: "되새겨 볼 박정희 정부의 자강 노력"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1) 시사저널 인터뷰 (2024. 11. 2. 토)
- 내용: "트럼프 시대 기준점은 이념·도덕·가치 대신 '철저한 국익'이 돼야"

2) KBS TV '이슈 픽, 쌤과 함께' 출연 (2024. 11. 3. 일)
- 내용: "지금까지 없었던 대선,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3) 연합뉴스 TV '뉴스특보' 출연 (2024. 11. 5. 화)
- 내용: 해리스·트럼프 '결전의 날'…역대급 대선레이스 마무리

4) YTN '이슈플러스' 출연 (2024. 11. 6. 수)
- 내용: 트럼프 '47대 대통령 당선 영광'...승리 선언

5) 이데일리 인터뷰 (2024. 11. 6. 수)
- 내용: "시대정신 읽었다" 트럼프, 대선 승리 비결은?

6) 조선일보 인터뷰 (2024. 11. 12. 화)
- 내용: "美가 이끈 자유주의 국제질서 바뀌어… 이분법적 세계관을 버려야 기회 온다"

7) YTN 라디오 인터뷰 (2024. 11. 12. 화)
- 내용: "트럼프, 아는 만큼 보인다.... 김정은 만남 시간문제, '핵우산'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8) 이데일리 인터뷰 (2024. 11. 12. 화)
- 내용: 트럼프 시대, '혈맹'보다 '실익외교'...대북정책 변화 필요

9) 한국일보 기고 (2024. 11. 19. 화)
- 내용: "Deep&wide, 80년 이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 트럼프 4년에 허물어진다"

10) 연합뉴스 TV '곽수종의 경제프리즘' 출연 (2024. 11. 24. 일)
- 내용: 트럼프 재집권이 의미하는 것은?

11) 세계일보 '세상을 보는 창' 인터뷰 (2024. 11. 27. 수)
- 내용: "韓, 우크라 무기지원 명분·실익 없어… 대러관계 감안 신중해야"

3. IFES 브리프 및 포럼

가. IFES 브리프 (3건)

IFES브리프(요약)

트럼프 귀환과 대한민국의 과제

(2024. 11. 9. 정재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前연합뉴스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가 귀환했다. 트럼프는 538명의 선거인단 중 312명을 확보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226명)에 압승했다. 그의 완승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심판론 ▲경제와 불법 이민 중심의 선거전략 우위 ▲지지층 결집 성공 ▲'두 개의 전쟁'에 대한 유권자의 피로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트럼프 2기는 바이든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폐기 또는 수정하는 'ABB(Anything But Biden) 정부'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 부상 견제라는 대외정책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여 축소(retrenchment)와 자제(restraint)를 통해 힘을 비축하면서 미·중 전략경쟁에 집중할 것이다. 트럼프는 1기 때보다 정교한 형태로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충성심이 강한 'MAGA' 추종자들이 선봉에 설 것이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우리나라는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측면에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첫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다. 한국과 미국은 미 대선 직전 2026년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올리는 내용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타결 지었지만,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핵 문제다. 만일 트럼프가 북한의 핵 능력 감축 또는 동결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또는 주한미군 감축 등을 교환하는 조건 등으로 김정은과 북핵 문제에 합의한다면 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심각한 안보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셋째, 관세(Tarif)와 공급망 문제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탈동조화(Decoupling) 정책을 추진하면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슈퍼 트럼프'의 귀환은 안보·경제 측면에서 복합적인 과제를 던졌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정교하게 대응하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트럼프의 귀환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거래 중심적 패러다임'이 대세가 된 만큼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다'라는 식의 태세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분열을 막는 일이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문제, 북미대화, 미·중 경쟁과 공급망 문제 등을 놓고 남남갈등이 빚어지면 위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정치권도 '국경 앞에서까지만 싸우고 국경을 넘어선 국익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전문 내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IFES브리프(요약)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그 전망

(2024. 11. 19. 미야모토 사토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2024년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군부대를 파견했다고 우크라이나가 발표하였고, 한국, 미국, NATO가 이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 시작된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에 이어 군사 지원까지 확대된 사례다. 북한은 과거 냉전 시기 53개국에 군사 지원을 한 전례가 있으며, 이는 무기뿐만 아니라 기술요원이나 자문단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해외 파병은 크게 줄었고, 시리아 내전 외에는 대규모 파병 사례가 드물었다. 이번 러시아 파병은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변화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해외 파병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과거 베트남 전쟁과 중동전쟁 등에서도 파병 사실을 부인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야 이를 공개했다. 이번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직 구체적인 군부대 정보나 파병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특수작전군이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특수작전군은 2017년 공식적으로 존재가 드러난 부대로 산악 및 산림 전투에 특화된 부대다.

북한의 해외 파병 목적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 군사적 동맹 강화와 미국 및 그 동맹국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한다.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도 북한은 자국 자원을 투입하며 지원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미국을 대항할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현재 러시아 파병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미국과의 미래 충돌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파병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9월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의 방북을 통해 이루어진 협의의 결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직접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군부대를 보내면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실질적인 것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파병으로 단순한 조약 체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이며, 향후 미국과의 무력충돌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북한의 해외 파병은 신중한 전략 아래 이루어진다. 북한은 과거 패배 가능성이 높은 전쟁에 파병한 적이 없으며, 이번 러시아 파병 역시 러시아가 패배하지 않는 것을 확신한 결정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뿐 아니라 미국 및 NATO와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내부 결속과 방어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전문 내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IFES브리프(요약)

트럼프 재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법적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2024. 11. 28. 전령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2024년 미국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한반도는 국제법과 국내법 전반에 걸쳐 상당한 법적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비핵화를 둘러싼 대북정책, 한미동맹,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세가지 핵심 영역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이 제기 될 것으로 본다. 트럼프 1기 때는 대북 강경책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주한미군 감축 논의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면,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대북정책 측면에서는 싱가포르 합의문서의 법적 지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합의문은 현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비핵화 협상의 상징적인 기초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비핵화의 정의와 이행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검증체계와 이행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제재 완화 문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독자제재에 대해 북한은 유엔헌장 제2장 제7항의 내정불간섭 원칙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주한미군 문제가 법적 쟁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2026년-2030년 SMA는 이미 체결된 상태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증액을 요구할 경우, 이는 헌법에 따른 국회의 재정권(제54조)과 조약 비준권(제60조)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될 수 있다. 국회는 방위비 부담금의 적정성을 의심하고 협정 비준을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제법적으로도 과도한 증액 요구는 조약의 비합리적 이행으로 간주 될 수 있다. 한편,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재개 될 경우, 한미상호방위 조약상 의무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관계교류협력법의 실효성이 제약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발전법 제3조와 제17조에 따른 대표적 협력사업이나, 현재 국제적 제재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도 제재로 인해 실질적인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제재 상황을 고려한 법 개정이 필요하며, 외교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트럼프의 재선은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법적 과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법적 구속력 확보가, 한미동맹에서는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문제의 법적 조정이, 남북관계에서는 교류협력 법제의 실효성 제고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조화시키는 가운데 현실적인 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전문 내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나. IFES 포럼 (2건)

o 제목: Welcome to Trump's World (11.12,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o 제목: What is the Future Security Strategy for the Korean Peninsula in Trump's Second Term? (11.21.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 전문 내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4. Fellowship 사업

연구소는 Fellowship 사업 관련 11월중 활동으로 △펠로 최종 발표회 △통일부 합동 워크숍 △펠로 수료식 등을 실시했다.

가. 펠로 최종 발표회

- 일시/장소: 2024. 11. 7.(목) 10:00 / 평화관 1층 대회의실
- 발표자: 펠로 1명(일본 호리야마 아키코)
- 참석자: 펠로 1명(일본 미야모토 사토루),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 김상범·조진구 교수, 실무진
- 주요내용: "북한 인권과 국제협력의 구도변화-COI 보고서 후 10년의 납북자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발표 이후 연구소 교수진들의 다양한 코멘트를 반영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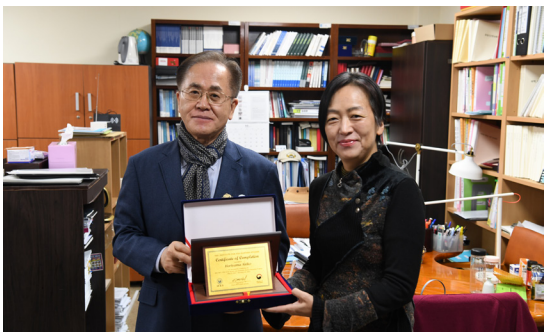
나. 통일부 합동워크숍

- 기간/장소: 2024. 11. 12.(화) ~ 11. 13.(수)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주요 프로그램: ▲특강 2회(사례로 본 북한인권-윤보영 북한대학원대 연구교수, 북한의 적대적 두 개 국가 선언과 남북관계-허정필 동국대학교 대우교수) ▲통일미래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열쇠전망대 답사 등 진행
- 참석자: 펠로 1명(미야모토 사토루), 펠로 수료자 3명(진호, 안드레이 코브시, 엄파벨), 석·박사 학위과정생 2명(비자노프 예르잔, 마델린 콜린스) 통일부 관계자 등
- 주요내용: 합동 워크숍을 통해 북한·통일문제 연구와 펠로-석·박사 학위 과정생들간 네트워크 형성 등 화합을 다지는 기회 마련

다. 펠로 수료식

- 일시/장소: 2024. 11. 1.(금) 10:00, 11. 28.(금) 10:30 / 소장실
- 수료자: 펠로 2명(11. 1, 중국 양향봉 / 11. 28, 일본 호리야마 아키코)
- 참석자: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 김상범 주임교수, 실무진
- 주요내용: 이관세 소장은 6개월 동안 통일·북한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한 것에 대해 격려하며, 향후에도 통일·북한문제 전문가로 많은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

〈 중국 양향봉 〉



〈 일본 호리야마 아키코 〉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북한

- **10.31. ICBM 화성포-19 발사 보도, 김정은 "핵무력강화로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것임을 확언" (10.31. 조선중앙통신, 11.1.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이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를 강조하며, '국가핵무력강화 노선' 관철에서 국방과학 부문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력적 과업들을 천명했다고 밝힘.

- **11.1.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 유엔사무총장 겨냥 "우리의 변화 기대 말라" (11.2.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여정 부부장은 화성포-19 시험발사와 관련한 유엔사무총장의 비판에 대해 '자위권행사'라 반박하고, 김정은이 북한 정부 입장을 재천명했다며 (핵무력강화)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

- **11.1. 북-러 외무상 전략대화 공보문 (11.2. 조선중앙통신, 11.3. 로동신문)**
  - 북한 매체는 공보문을 통해 11.1.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한(최선희)-러시아(라브로프) 외무상 전략대화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행 문제 관련 의견교환 ▲현 국제정세에 대한 쌍방 평가 일치 및 대미 공동인식 표명 ▲러시아의 대북 지지 ▲대외정책 기관들 사이 대화의 여러 급 계속 진행 합의 등이 있었다고 전함.

- **11.2. 외무성 대변인 성명 (11.2.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화성포-19 발사와 관련해 유엔안보리 소집이 결정된 데 대해 비난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및 확장억제 조치와 연합훈련들을 열거하며,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엄중경고를 외면하고 도발적으로 나올수록 보다 강력한 대응력에 직면하게 될것"이라 밝힘.

- **11.4. 김정은, 평안북도 피해복구건설현장 현지지도(3차), "피해복구전투를 12월당전원회의를 맞으며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 지시 (11.5.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11.4. 김여정 담화,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비난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위협은 우리 핵무력강화로선의 정당성을 완벽하게 립증할뿐" (11.2.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11.4. 푸틴-최선희 상봉, 김정은 구두메시지 전달 및 담화, "새로운 전면적발전궤도우에 올라선 조로친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려는 의지 재확인" (11.2.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11.11. 최룡해, 강원도 여러 단위 사업 현지요해 보도 (11.11.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최룡해(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고산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고산군 원료기지 사업소, 원산구두공장, 고산과수종합농장, 안변군 오계농장, 산림경영소, 염소목장, 안변군 인민위원회 등 방문

- **11.11. '북러조약'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 (11.12.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북러 간 체결(6.19.)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북한 국무위원장('국가수반') 정령으로 11.11. 서명·비준
  - 러시아는 북러조약 비준 관련 법을 채택·승인하고 11.9. 발표

- **11.14. 김정은,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현지지도 "마지막까지 시공 질 보장, 완공 동시 생산 진입해야" (11.15.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11.14.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현지지도 "하루빨리 계열생산체계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 (11.15.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은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하는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을 현지지도하며 "하루빨리 계렬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하라고 지시

- **11.15. 김정은, 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 (11.18.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연설에서 김정은은 "핵무력강화로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지 오래"라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해나갈것"이라 언급

-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1차 회의**

- **11.18. 김정은,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과 만나 담화 "북러 교류협조 다각적 촉진" (11.19.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11.19. 김정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사업 현지지도 … 2025년 계획도 지시 (11.19.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은 올해 12월 전원회의와 관련해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해 사업정형을 정확히 총화하고 이룩한 경험과 발전성과를 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해 지방공업공장 건설사업 결속과 2025년 계획작성 관련 중요 지시를 하달

- **11.21. 김정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연설 "미국과 협상 갈 수 있는 곳 다 가봐, 결과는 침략적·적대적 대조선정책" (11.22.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은 11.21.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연설에서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며 "(미국의) 철저한 힘의 립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적대적 대조선정책"을 확신하게 됐다고 언급

● **11.23. 국방성 공보실장 담화,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비난 (11.23. 조선중앙통신, 11.24. 로동신문)**
- "격상된 전투준비태세에서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적동태를 엄정히 주시하고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을 사전억제하고 국가의 군사전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즉시적인 행동에 림할것"

● **11.26. 김정은, 함경남도 신포시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장 현지지도 보도 "지방경제발전 동력 확보" 강조 (11.26.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은 지난 7월 15일 지방경제발전관련협의회를 지도했던 신포시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장을 다시 찾아 현지지도하며, 사업소 건설을 12월 전원회의 전에 결속하기 위한 기능공역량을 증강할 것을 지시

미국 / 일본

●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미 우선주의 돌아왔다' 전세계 긴장 (연합뉴스, 11.7)**
- 박빙 예상 깨고 완승… 동맹중시 약화·보호무역 강화 예상

● **미 국무부 "북한군, 쿠르스크에서 우크라 상대 전투 개시" (KBS, 11.13)**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 (YTN, 11.15)**
- 우크라 군사분야 싱크탱크 CACDS가 우크라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 **미·일·호주, 방위협의체 신설 합의…"불안정 초래하는 중국 우려" (경향신문, 11.17)**

● **"바이든, 북한군 대응 위해 우크라에 미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 (SBS, 11.18)**

● **한미일·호주·필리핀 첫 국방장관 회담…인태지역 협력 결의 (연합뉴스, 11.21)**

● **일본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재선출 (KBS, 11.12)**

● **중일 1년 만 정상회담…'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 재확인 (뉴스1, 11.16)**
-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페루 리마에서 회동

●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日, 사과 없었다 (세계일보, 11.24)**

중국 / 러시아

- **신임 주한중국대사에 다이빙 주유엔 부대사 (뉴스1, 11.13)**
- **중국 여행사, 북한 관광 모집 중 (국민일보, 11.15)**
  - 북한 관광 전문 중국 여행사 고려투어스(Koryo Tours) 12월 28일, 30일 베이징 및 단둥 출발 북한 단체관광 상품 2건 판매 중
- **윤 대통령, 중국 시징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 (중앙일보, 11.16)**
  -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 진행
- **트럼프 '관세장벽' 겨냥, 시진핑 주석 "다자무역 체제 중요" 강조 (중앙일보, 11.19)**
  -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시진핑 발언
- **프랑스 마크롱, 시진핑과 정상회담에서 북한 러시아 파병 비난 (세계일보, 11.20)**
  -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촉구
- **무비자 효과…중국 여행 예약 '급증' (한국경제, 11.25)**
  - 중국 정부의 무비자 정책 시행 직후, 중국 여행 예약률 급증세
- **러, 우크라전 장거리미사일 허용에 "3차대전" 경고 (서울신문, 11.18)**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약 300㎞인 미국산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 하자 러시아가
- **러 외무차관 "美, 아시아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하면 맞불조치" (뉴스핌, 11.26)**
  -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음을 경고
  - 미국이 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같이 대응할 것으로 해석
- **러,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땐 모든 방법 대응" (동아일보, 11.26)**
  -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 24일 경고
- **팀쿡, 올해만 세 번째 중국 行… 리창 총리 등과 '공급망 토론'(이데일리, 11.26)**
  - 쿡 CEO, 중국국제공급망진흥박람회 방문.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 고율 관세를 예고

연구소 소식

IFES 동정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예정사항

안내사항

IFES

1. IFES 동정

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인사 변동사항

- 박노벽 초빙교수 (2024.12.1. ~ 2026.2.28.) / 前주러시아·우크라이나 대사
- 곽채원 초빙연구위원 (2024.12.1. ~ 2025.11.30.) / 現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권금상 초빙연구위원 (2024.12.1. ~ 2025.11.30.) / 現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위원
- 김영희 초빙연구위원 (2024.12.1. ~ 2025.11.30.) / 現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 現북한연구학회 부회장
- 최진환 초빙연구위원 (2024.12.1. ~ 2025.11.30.) / 現선린인터넷고등학교 교사

나. 『IFES 사료실』 구축·개설 (2024. 11. 3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개소 이후 50년 역사와 발자취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IFES 사료실』을 구축·개설 하였다.

2022년 연구소 5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한 사료집 『평화통일의 여정 (1972~2022)』에 담긴 활동사항을 토대로 그동안 연구소가 발행했던 다양한 학술자료와 국내외 학술활동 결과는 물론 지난 5년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결과물 등 연구소의 역사와 관련된 실물자료 등을 총 망라하였다.

또한, 북한 특수자료실 재정비 사업과 아카이브실을 미·일·중·러 주요국 자료실로 개편함으로써 학술연구자료 축적과 정리 등 환경개선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주요활동 결과물과 학술연구 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배치해 나감으로써 북한·통일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2. 언론 속의 IFES

가. 『제12차 삼청포럼』 개최 동정 언론보도

- (SPN 서울평양뉴스 / 2024.11.05.) 제12차 삼청포럼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 (삼청포럼 안내 포스터 게재)
- (중앙일보 / 2024.11.2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21일 오후 7시 평화관에서 박노벽 전 주러시아·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청해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삼청포럼을 개최한다.
  ※ 기사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3297

나.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時 '황금장미', 창작곡으로 재탄생 언론보도 (2024. 11. 19.)

(동아일보 도영진 기자)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80·사진)의 시 '황금장미'가 창작곡으로 재탄생했다. 경남대는 13일 경남 창원시 3·15아트센터에서 한국음악협회 마산지부 주최로 열린 '제16회 내고향 마산의 노래' 음악회에서 김 이사장의 시가 창작 작품으로 연주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에선 '그리운 고향, 내 고향의 노래를 부르다'를 주제로 마산지역 관련 창작 작품 10곡이 연주됐다. 김 이사장의 시에 김희원 작곡가가 곡을 만들었고 공연에선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정혜원 소프라노가 노래를, 전병하 이음오페라 대표가 피아노를 연주했다.

김 이사장은 2009년까지 경남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한 뒤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지냈다. '그날 그 꽃'과 '황금장미' 등 총 3권의 시집을 발간하는 등 시인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 『IFES 브리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그 전망' 인용 언론보도 (2024. 11. 20.)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대규모 전투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한 목적은 '경제적 이익'보다 '미국의 굴복'에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미야모토 사토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9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그 전망'이라는 제하의 이슈브리프를 통해 "북한이 무기 지원 및 해외파병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최대 적인 미국과 그 동맹국을 굴복시키는 데 있다"면서 "경제적인 보상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라. 『제12차 삼청포럼』 개최 결과 언론보도 (2024. 11. 22.)

뉴스1, CNB뉴스, 경남뉴스투데이, 한국공보뉴스, 교수신문, 대학저널 등 12개 국내 언론사에서 『제12차 삼청포럼』 개최 내용을 보도했다.

"北, 러시아 파병 대가로 드론 작전 기법 습득할 듯"

〈 제12차 삼청포럼 개최 〉

〈 주요 기사내용 요약 〉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를 역임했던 박노벽 전 대사가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드론 작전 기법'을 습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21일 밝혔다.

박 전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군의 쿠르스크 활동과 이에 대한 위험성을 진단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대사는 지난 1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자국 내 방산기업에 전술타격용 드론의 대량 생산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드론을) 러시아에 수출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북한이 값싼 무인시스템을 작전 계획에 결합시키는 것에 집중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위협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3. IFES 도서관

가. 신간 도서 안내

연구소 도서관은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 4/4분기 중 신간 도서(외서) 14권을 입수하였다.

〈주요 신간 도서(외서) 목록〉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北東アジアのグランドデザイン: 發展と共生へのシナリオ	北東アジア.グランドデザイン研究會	日本經濟評論社	2003
[POD] Conflict After the Cold War : Arguments on Causes of War and Peace (Paperback, 6 ed)	리처드 베츠	Routledge	2021
Comparative Peace Processes (Paperback)	Jonathan Tonge	Polity Pr	2014
Economists in the Cold War : How a Handful of Economists Fought the Battle of Ideas (Hardcover)	Alan Bollard	OUP Oxford	2023
The Beauty of Games (Hardcover)	프랭크 란츠	MIT Press Ltd	2023
How Reason Almost Lost Its Mind: The Strange Career of Cold War Rationality (Hardcover)	Paul Erickson	Univ of Chicago P	2013
Decoding the Sino-North Korean Borderlands (Hardcover)	Adam Cathcart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21

나. 개방서가 운영 현황

연구소는 도서 나눔을 통해 자료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연구자들이 북한·통일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눔 서가를 운영하고 있다. 11월 개방서가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1월 운영 현황: 도서기증 421권, 도서나눔 305권

4. 예정사항

가.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12.03.)

나. 제13차 삼청포럼 개최 (12.10.)

다. 제74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12.18.)

라. 『Asian Perspective』 (2024 Fall) 발간 (12.01.)

마. 『한반도 포커스』 (2종) 발간 (12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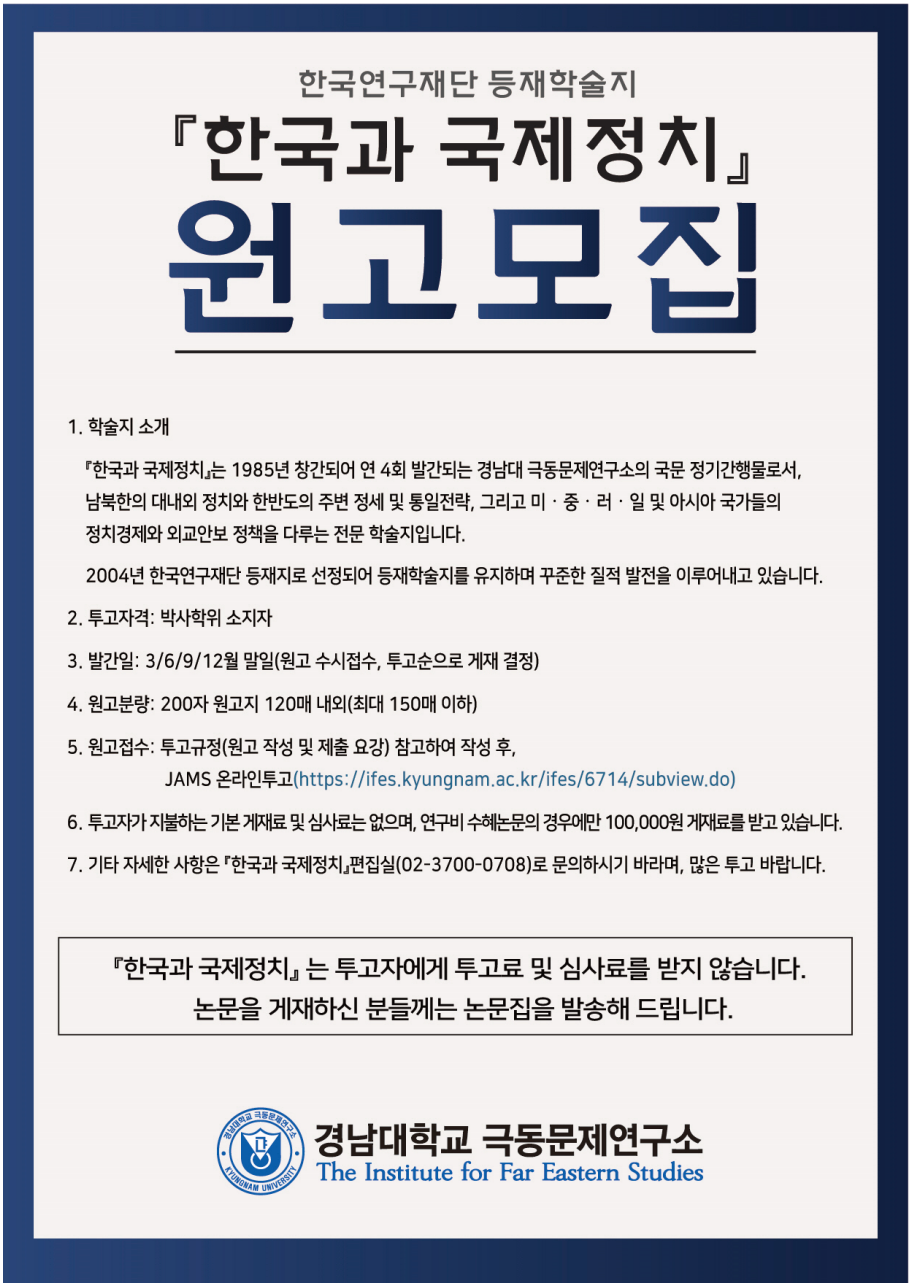
바. 한반도 정세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전망 발간 (12월중)

사. 『한국과 국제정치』 (2024년 겨울) 발간 (12.31.)

아. Fellowship 사업 / 최종 발표회 및 수료식 등

5. 안내사항

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 모집 안내



나.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연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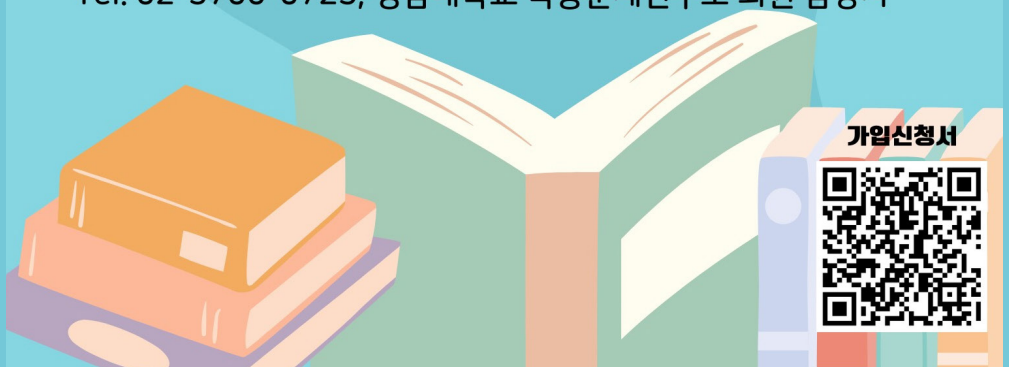
- 학생회원: 30,000원/일반회원: 50,000원/기관회원: 10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 이용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